

2019年度 学校評価アンケート 教員自己評価

2020年3月5日

認定こども園 建国幼稚園

2019年度、「学校評価アンケート」について、ご協力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建国幼稚園は今年度より認定子ども園となり、従来の幼児教育に加え、新しく保育の部分でも準備、研究を重ねてきました。これらの教育活動についてアンケート結果をもとに、今年度の重点目標に照らし、教員自己評価を行いました。

※（文中の高い評価とは、解答の「A:よくあてはまる」と「B:ややあてはまる」を足した数値、低い評価とは「C:あまりあてはまらない」と「D:まったくあてはまらない」を足した数値を指します）

(1) 遊びを通して学び、生きる力を育てる（アンケートNo.2, 4, 5, 6, 7）

今年度の重点目標の1番目は「遊びを通して学び、生きる力を育てる」です。これに係る各項目の回答の平均値が92%という高い評価を得ました。

園では、常々「年齢に応じた環境設定に力を入れる」ことで、子どもたちの主体性を大切に、「考え、話し合い、実行」できるように努めています。特に今年度は「集団(仲間)作り」に力を入れ、友達とルールを考えたり、つくったりすることで「相手のことを考えて行動すること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を高めることに努めてきました。集団作りは子どもたち同士の「憧れ、意欲、興味」を育てることに大きな効果が見られます。

また「たてわり活動（異年齢交流活動）」も人とのかかわり方、社会性、いたわる心、慈しみ、協力する心を育てるために有意義な活動であると考え、合わせて力を入れてきました。年齢幅が広がる小学生との交流はもちろん、建国高校生が毎週園児と遊んだり、絵本を読んでもくれたり、人形劇をしてくれ、その活動に幅を持たせてくれたのは、建国ならではの教育環境のおかげと考えます。

しかし、低い評価が8%あったということに、まだまだ研究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ます。子ども達の興味関心を膨らませ、活動に広がりを持たせる努力をこれからも続けたいと思います。

(2) 基本的な生活習慣や食習慣を身に付け、丈夫な体を作る（アンケートNo.8~12）

この項目では高い評価が94%となり、幼稚園教育の中で一番基本とする生活習慣に関する満足度が高かったことを受けて、現在の指導や方向性をさらに維持発展させていく必要を感じました。

園では「知・徳・体」のバランスの取れた成長をのぞむうえで「自らすすんで挨拶する」「着替え、整頓、排泄等、身の回りの事の自立」「食事のマナーや、好き嫌いをなくす」「健康で丈夫な体をつくる」など、生活面で良い習慣を身につけられるよう、取り組んでいます。12番の問いに対し

てDの評価が3%あったということにも着目し、決して子どもたちへの強要ではなく、一人ひとりが確実に良い習慣が身につくよう、より家庭との連携を持って指導を工夫したいと思います。

(3) 自他を尊重し、国際感覚を育てる (アンケート No.1、3、13、14、15)

建国幼稚園設立の経緯とその教育環境の特色を生かした「自他を尊重し、国際感覚を育てる」という教育目標について、園では一緒に育つ中で互いの違いや文化の違いを自然に学び、「自分を大切に思い」、「相手を思いやる気持ちをもつ」ことをいつも大切に考えています。

日常のあいさつや基本的な生活用語を韓国語で話したり、また行事を通して、韓国や多民族の文化に親しんだり、毎朝の Sun rise English、朝や終わりの会での歌、手遊び、読み聞かせ、そして設定保育の中での韓国語の時間、舞踊の時間など、多文化に触れる他にはない安定した取り組みをしてきました。

しかし、アンケート3番の「日本語・韓国語・英語を設定保育に取り入れ、語学環境を整えている」についての高い評価が83%であったことは注意すべき課題ととらえています。年度によって韓国語あるいは日本語が豊かになる年、など多少の変化はありますが、子どもたちが卒園するまでに身につけられる語学力は、ほぼ韓国語・日本語の両方に平均的に触れられる環境にしていくことを改めて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何より一番大切なことは、「深い思考力を養うこと」と意識して、これからもこの時期だからこそ養える子どもたちの自然な「思いやり」や、「国際感覚を育てる」取り組み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4) 地域に開かれた園づくりを目指す (アンケート No.16~18)

昨年に引き続き、今年度も建国幼稚園の情報発信として、ホームページの充実と行事ごとのブログ発信の回数を増やすことに意識して取り組みました。

「教育方針は年度のはじめにプリント」で、「行事の案内は通信やお知らせ」で、「活動の様子は行事ごとに通信やブログ」でお伝えし、今年度は、「スタディサプリ」の登録も進み、こまめな情報提供を心掛けてきた結果、91%の「高い評価」が得られました。

地域へは、住吉区の「すみちゃん子育てネット」などを通して、未就園児教室「ぴよんあり」など子育て支援活動に努めたり、キッズフェスタという地域に根差したイベントの取り組みを重ねてきました。また、住吉区のシルバー人材ボランティアの方々に花の苗をいただいたり、植え方を教えていただいたり、1年に2回、読み聞かせをしていただいたりする機会を持つなど、地域とのつながりを意識し、その都度情報発信に努めました。

来年度もより開かれた幼稚園を目指し、一つひとつの取り組みを検証し、丁寧に進めたいと思います。

また新しい一年に向け、子どもたちにとってより楽しく有意義な園となるよう、保護者のみなさまのご協力を得ながら、教員一同さらに研究・研鑽を積んでいきます。

2019 년도 학교 평가 설문조사 교원 자기 평가

2020 년 3 월 5 일

인정어린이집 건국유치원

2019 년도 ‘학교 평가 설문조사’에 대한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건국유치원은 올해부터 인정어린이집이 되어, 기존의 유아교육과 더불어 새로이 보육 부분에서도 준비와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금년도의 중점 목표와 비교하며 교원 자기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글의 높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A:매우 그렇다’와 ‘B: 약간 그렇다’를 더한 수치이며, 낮은 평가란 ‘C:별로 그렇지 않다’와 ‘D:전혀 그렇지 않는다’를 더한 수치를 말합니다.)

(1) 놀이를 통해 배우고,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설문 No.2, 4, 5, 6, 7)

올해의 중점 목표 중 첫번째는 ‘놀이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입니다. 이에 관련된 각 항목 응답의 평균치가 92%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항상 ‘연령에 맞는 환경 설정’에 힘쓰으로써, 아이들의 주체성을 소중히 하며 ‘생각하고, 대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집단(동료) 만들기’에 힘을 쏟아, 친구와 함께 규칙을 생각하거나 만듦으로써 ‘상대방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집단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사이에 ‘동경, 의욕, 흥미’를 키우는 데도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연령 어린이와의 교류 활동’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법, 사회성, 배려심, 자애심, 협동심을 기르는데 있어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힘을 쏟아 왔습니다. 또한 연령폭이 넓어지는 초등학교들과의 교류는 물론, 건국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주 원아들과 놀아주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인형극을 해 주어, 그 활동의 폭을 넓힌 것은 건국만의 교육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은 평가가 8% 있었으므로 아직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크게 키워, 활동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2)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익히고 튼튼한 몸을 만든다(설문 No.8~12)

이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가 94%로서, 유치원 교육 중 가장 기본으로 하는 생활 습관에 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도와 방향성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지·덕·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꾀하고자 ‘스스로 인사하기’ ‘웃 갈아입기, 정돈, 배설 등 기본 일상생활의 자립’ ‘식사 매너와 편식 없애기’ ‘건강하고 튼튼한 몸 만들기’ 등 생활면에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2 번 질문에 대한 D 의 평가가 3% 있었다는 결과에도 주목하여, 어린이들에게 결코 강요가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이 확실하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가정과의 제휴를 보다 강화하며 지도해 가고자 합니다.

(3) 자타를 존중하고 국제 감각을 기른다 설문 No.1,3,13,14,15)

건국유치원 설립 경위와 그 교육 환경의 특색을 살린 ‘자타를 존중하고 국제 감각을 기른다’라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는 함께 자라는 가운데 서로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배워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항상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인사말이나 기본적인 생활용어를 한국어로 말하고, 또한 행사를 통해 한국이나 다민족의 문화를 익히며 매일 아침의 Sunrise English, 아침이나 끝 모임에서의 노래, 손놀이, 읽어주기, 그리고 설정보육 중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한국어 시간, 전통무용 시간 등, 다문화에 접할 수 있는 활동을 안정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3 번 ‘일본어·한국어·영어’를 설정 보육에 도입하여 어학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에 대한 높은 평가가 83%였던 점은 주목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한국어 및 일본어가 풍부해지는 해 등 다소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익힐 수 있는 어학력은 거의 한국어·일본어 양쪽 모두 평균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의식하고, 앞으로도 이 시기이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배려’나 ‘국제 감각을 기르는’ 활동을 더욱 깊이 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4) 지역을 향해 열려 있는 유치원을 지향한다 설문 No.1,3,13,14,15)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국유치원의 정보 발신으로서 홈페이지의 충실화와 매 행사의 블로그 게재 회수를 늘리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교육 방침은 연도가 시작될 때 프린트’로, ‘행사 안내는 통신과 안내문’으로, ‘활동 모습은 매 행사마다 통신과 블로그’로 전해 드렸고, 올해는 ‘스터디서플리’ 등록도 진행되어 끊임없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91%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스미요시구의 ‘스미짱 육아넷’ 등을 통하여 미취원 어린이 교실 ‘병아리’ 등의 육아 지원 활동을 하거나, ‘키즈페스타’라는 지역 기반 이벤트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스미요시구의 실버 인재 자원봉사자 분들로부터 꽃의 묘목을 받거나, 심는 법을 배우거나, 1 년에 2 회 책 읽어 주기를 하는 기회를 만드는 등, 지역과의 연대를 의식하여 그때마다 정보 발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열려 있는 유치원을 목표로, 하나하나의 활동을 검증하며 정성껏 진행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1 년을 향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즐겁고 의미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협력 속에 교원 일동은 더욱 연구해 나가겠습니다.